

“조기발견하면 살 수 있습니다!” - 자궁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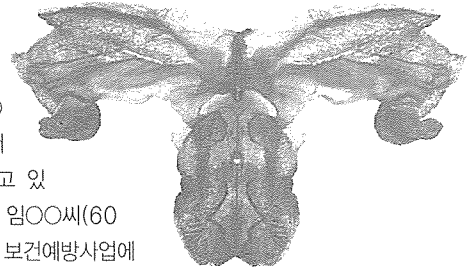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결과 자궁암 유소견 현황(1998년 12월 중)

암 검진인원		자궁암 유소견자(52명)	자궁암 확진자(9명)
12,631명	서울	2명	
	부산	3명	1명
	대구	3명	3명
	인천	15명	
	경기	14명	1명
	대전충남	1명	
	전북	1명	1명
	광주전남	6명	
	경북	7명	3명

자궁암 발견 사례

◀10

부산 해운대구의 유○○씨(70세)는 건협 부산지부에서 건강검사를 받은 결과, CLASSIV 판정을 받고 현재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또 대구 달서구의 김○○씨(56세), 서구의 이○○씨(50세), 조○○씨(76세)의 경우, 건협 대구지부가 동사무소에서 실시한 출장검사에서 각각 자궁암을 발견하여 항암치료·호르몬치료 등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정○○씨(74세), 경북 칠곡군의 임○○씨(60세), 류○○씨(50세), 정○○씨(56세) 등이 건협 지부와 도가 실시한 보건예방사업에서 자궁암을 발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자궁암이란

우리 나라 여성 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궁암인데, 그중 경부암이 97% 정도 된다. 자궁경부암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위생상태가 나쁜 사회계층의 여성, 첫 성 경험 연령이 낮은 경우, 성 경험이 많거나 매독 등 성병을 앓았던 여성 또는 다산을 한 여성 가운데 많이 발생한다.

자궁경부암은 초기에는 특별한 자각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상피내암의 경우도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80% 이상이나 된다. 따라서 하복통·요통·성교 시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때는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궁암은 조기에 발견만 되면 암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의 100% 완치가 가능한 질병 중의 하나이지만, 주변 장기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예후가 나쁠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인 암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궁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100% 완치가 가능하지만,
주변 장기로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예후가 나쁜 암이다.
따라서 기혼 여성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자궁 세포질 검사 받아야 한다.